

월간 주요 이슈 1

연합뉴스(2023. 5. 5.)

위해성 커 회수한 어린이용품 3년간 17개... "집에 있나 확인해야"

-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위해성이 크다고 평가돼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조치가 내려진 어린이 용품이 17개로 나타났다.
- 환경부에서 받은 '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'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조사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돼 업체에 어린이용으로 판매중지와 제품 회수가 권고된 어린이용품은 17개였다.
- 연도별로 회수가 권고된 어린이용품은 2020년과 2021년 7개, 작년 3개 등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, 회수가 권고된 용품 대부분은 물감이었다.
- 위해성이 크다는 판단은 '특정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'인 '위험 지수'나 '독성 역치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됐을 때 이 때문에 추가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'인 '초과발암위해도'가 일정 수준일 때를 말한다.
- 회수 조치 실시 시, 도·소매업체가 보유한 제품은 비교적 쉽게 수거되지만, 각 가정에 있는 제품은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- 환경부가 회수량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이는 업체가 보고한 양이어서 전체 회수율도 제대로 파악 되지 않는 실정이다.
- 환경유해인자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